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2월 3~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베트남 2월 경제 동향

- 베트남, '25년 GDP 성장 목표 8% 이상
 - 국회는 '25년 경제성장률 8%, 전체 경제규모 5,000억달러, 1인당 GDP 5,000달러 달성, 인플레이션 통제목표 4.5~5% 등을 골자로한 사회경제 발전 목표 조정안 승인
- 미국 신정부 고율관세 우려로 미국 달러(USD) · 베트남 동화(VND) 환율이 연일 상승(동화가치 하락)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 베트남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후자를 내고 있어 미국 신정부의 관세 폭탄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환율 상승
 -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무역후자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USD 1,230억으로 미국정부는 베트남이 중국제품의 우회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자주 문제를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후 한달 유예한데 이어 오는 3월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예외나 면제없이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관세압박 가속화
- 미국, 3월 12일부터 수입 철강 ·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 발표
 -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타격을 입을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 베트남,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등을 거론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철강 수출은 USD 11.3억으로 액수 기준 전체 수출국 중 8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였지만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40% 기록
 -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같은기간 대미 철강 수출은 167만톤, 약 USD 13.2억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각각 9.4%, 10.5%를 차지

2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해상풍력발전 개발시점 2030년 이후로 연기 예정
 - '23년 승인된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 따르면 '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6GW 개발 목표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구체적인 정책 및 투자 승인된 개발사업 전무
 - PDP8 조정안 심의회에서, 해상풍력발전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전력원 중 하나로 현재 해상활동 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과 제도, 국방안보와 관련된 문제 등을 감안할 때 '30년까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이번 조정안을 통해 '30년부터 본격적인 전력원 개발에 나서 '35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의 용량을 1.7GW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
- 베트남, 닌투언 원자력발전소 외 추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추진
 - 베트남 공상부 장관은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 조정안 회의에서 원전 2기 건설이 확정된 닌투언성의 SMR을 통한 전국적인 원전 확대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힘
 - 추가 원전 개발과 관련해 조정안에서는 현재 개발이 확정된 닌투언성 2곳과 함께 '30년까지 잠재적 원전개발 후보지(8곳) 중 최소 3곳을 추가로 확정할 계획
 - 공상부는 '50년까지 닌투언성 원전 외에 북중부지방 5GW 규모 원전 추가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중 팡응아이성 2곳과 빈딘성 1곳을 대규모 원전 4기 개발이 가능한 잠재적 유력 입지로 보는 중
 - 베트남은 팜민쩐 총리 주재로 열린 원전건설운영위원회 2차회의에서 닌투언성 투언남현의 1호기와 닌하이현의 2호기 투자자로 각각 베트남전력공사(EVN)와 베트남석유가스그룹(PVN) 등 국영기업 2곳을 지정하고, '30년까지 5년 내 완공계획을 발표
- 베트남 총리, 35세 미만 청년우대 주택담보대출 마련 지시
 - 팜민쩐 총리는 중앙은행(SBV) 총재 및 국영·민간상업은행 경영진이 참석한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 대출상품 마련을 촉구

- 베트남 총리, 현지 대기업에 주요 인프라 사업 투자 요청
 - 팜민쩐 총리는 정부·기업 간담회에서 중국 국경 연결 철도와 북남고속철도, 닌투언 원전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주요 대기업들에 요청
 - 간담회에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을 비롯해 THACO그룹, FPT, 호아팻그룹 등 민간 26개사 최고위급 인사 참석
- 베트남, 부동산 보유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부과안 무산 전망
 - 베트남이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적용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 한계에 부딪혀 무산될 전망
 - 재정부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한 법무부는 보유기간별 차등 세율 적용은 관련 자료들을 국가 자료관리 틀안에서 세금 제도와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동기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한다며, 현재 세제와 토지관리 정책이 동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제도 연구를 재정부에 권고
- 베트남, 온라인 부동산거래소 개설 추진
 - 건설부는 매매부터 공증, 매물등록 등 토지 거래와 관련된 절차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있는 정부주도의 온라인 부동산 거래소 개설 추진 중
 - 건설부는 2분기 중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재정부, 농업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
 - 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를 억제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팜 민 찐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
 - 건설부는 이와 함께 시장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주도의 부동산거래소 및 토지사용권 거래 시범사업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고, 건설부 정보센터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과 데이터 연동, 정보 시스템 보안 강화로 이같은 디지털화를 지원할 방침

3 베트남 기타 동향

- 베트남, 저궤도 위성기술을 이용한 위성통신사업 투자 시범사업 승인
 -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혁신, 국가 디지털전환을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발표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규모나 지분율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이에 따라 미국의 우주기업 Space X는 베트남 시장에 최대 USD 15억을 투자할 것으로 추정
- 호치민시, 환경정화사업으로 임시주택 약 4만호 철거 예정
 - 호치민시 건설국에 따르면, 강과 수로 인근에 자리잡은 가건물과 판잣집, 수상가옥 등 임시주택 철거 및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에 VND 221조(USD 86억) 규모의 비용이 들 것으로 잠정 추산
 - 호치민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사용권 경매 또는 상업 및 서비스 주거사업 등을 통해 총 사업비 중 VND 164조(USD 64억) 상당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와 SK, LG 등 올해 베트남 에너지·첨단제조·지속가능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전망
 -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분야 외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베트남 디지털전환 과정 참여 등 장기적 투자 확대 방침
 - SK는 베트남 내 3개 LNG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아가 인공지능(AI), 수소, 물류, 친환경 농업, 혁신을 통합한 새로운 에너지허브 개발 목표
 - LG디스플레이는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다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수년간 하이퐁 공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생산능력을 확충(지난해 USD 10억 이상 추가투자)해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자 확대 방침

□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베트남) 베트남-중국 국경철도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베트남 교통운송부, 베트남 철도청
- (사 업 비) USD 76.2억 (VND 194.9조)
- (사업내용) 총 연장 391km, 9개 성·시 통과
- (추진현황) '25.2. 투자정책 승인 / '25. 타당성조사 / '30. 완공 및 개통 목표

- (주요사항) 라오카이-하노이-하이퐁 노선은 중국 윈난성-허커우-라오카이 국경부터 하이퐁항까지 하노이를 비롯해 9개 성·시 통과 (라오카이, 하노이, 옌바이, 푸토, 빈푹, 박닌, 흥옌, 하이즈엉)
 - 철도가 지나가는 지방은 베트남 전체 인구의 20%, 산업단지 25%가 몰려있어 개통 후 물동량 증가뿐 아니라 개발 전과정에 걸쳐 많은 일자리와 건설시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높은 경제적 효과 기대

② (베트남) 하노이시, 메트로 5호선 반까오-호아락 구간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USD 25.5억 (VND 65조)
- (사업내용) 총 연장 39km (지하 6.5km), 21개 역사(지하 6개)
- (추진현황) '25. 착공 예정

- (주요사항) 5호선은 바딘군부터 동다군, 꺼우저이군, 남뜨리엠군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을 차례로 통과해 교외지역인 화이득현, 꾸옥와이현, 탁텃현까지 이어지는 노선
 - 향후 2~8호선과 환승역 연결로 도심과 교외간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